

# 전남도의회 기싸움

### 민주·민주신당 양분 ...도지사 '정치적 중립' 요구

전남도의회가 민주당과 통합민주당으로 양분되면서 9월 임시회가 양당간 치열한 기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임시회 첫 날부터 통합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5일 오후 2시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보름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민주당 남기호(광양) 의원은 "지금 전남도는 한·미FTA 체결 이후 농어촌 문제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등으로 사활의 기로에 서 있다"며 "그런데 박준영 지사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어민을 위해,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남 의원은 이어 "도의원이나 단체장들에게 '그쪽 농어민들은 어떻습니까' '박람회 유치 특표에 도움이 될 방안은 없느냐'는 전화를 매일 걸어야 할 시점이다"며 "그런데 지사는 이런 전화 대신 '신당에 입당하라'는 회유 전화만 자주 건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탄을 날렸다.

이날 발언은 의석 과반수가 무너진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감치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부터 충분히 예고됐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민주당 소속인 박 지사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한편 도정 현안에 대해 치밀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발언에 대해 박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측은 발끈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이날 전례없이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 나서려고 했으나 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올 해 하반기 2012세계박람회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데도, 해당 도의원이 정치적 발언을 통해 이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노력이 도민들에게 잘못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이어 통합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회기동안 의원총회를 열고 교섭단체에 등록키로 해 양당간의 세대결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의원 정수 51명)는 지난해 7월 제8대 원구성 당시 민주당 46명, 열린우리당 3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었으나 최근 민주당 25명, 통합민주당 23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됐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민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각 정당,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에 보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한, 경선 앙금 털어낼까

### 이명박-박근혜 7일, 경선 이후 첫 회동

### 화합-분열 분기점... '명예직' 제의 가능성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7일 경선 이후 첫 회동을 갖기로 해 두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사상 유례없는 격전을 치른 두 사람이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약 3주만에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국면에서 당이 '화합의 길'로 접어들지 '분열의 수렁'으로 빠져들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박 전 대표측에서 화합의 전제조건으로 '당권·대권 분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 후보측과 미묘한 감정대립이 벌어지고 있어 이들의 만남은 상징성을 넘어서 향후 당의 진로에도 적지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집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

고·중진 연석회에서 "이 후보와 박 전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7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두 사람의 회동 사실을 확인했다.

강 대표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회동은 강 대표와 이 후보, 박 전 대표간의 3자회담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이 자리에서 속깊은 대화가 오고가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첫 회동인 만큼 당 운영방안이나 인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탐색전'을 벌인 뒤 회동 이후 각자의 체면을 통해 물밑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두문 의원은 5일 "주로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 될 것"이라며 "첫 자리에서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앞

으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는 제의 정도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측 유승민 의원에 "박 전 대표가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미 돕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으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되 세부적인 사안은 양쪽 참모가 말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박 전 대표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전격 제의할 것이라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다만 경선기간 내내 '이명박 필패론'을 역설했던 박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수락하기 '민망'하고 이 후보로서도 선불리 제의했다가 거부당할 경우의 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런 제의와 수락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 후보의 한 측근 의원은 "이날 회동은 탐색전으로 끝나고 이후 양측 측근들이 만나 선대위 고문 등 '명예직'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재산검증 고위급 지시 의혹"...국세청장 수사 의뢰

한나라당은 국세청의 이명박 대선후보 및 친·인척 재산검증 문제와 관련, 전권포 국세청장,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당시 국세청 조사과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5일 오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한나라당은 수사의뢰서를 통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혐의가 농후하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의뢰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 정권 내 최고위급 인사의 지시·조종에 의해 이 후보에 대해 불리한 의혹 자료가 생산되고, 이 의혹 자료를 토대로 불법적인 자료 조회·분석·보고 작업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조회·분석 및 보고된 이 후보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에서 "특위가 국세청을 방문할 때 국세청이 27명의 대통령 후보 예상자를 선정하고, 그 직계 존비속 108명에 대해 불법적 뒷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공연예술계 새 판 짜라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최근 열린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이하 예술제) 현장을 찾을 때마다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안은미컴퍼니 공연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 예술인들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어서였다.

공연계는 지역 문화 정책이 광주비엔날레 등 미술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제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많아 1~2억원 규모인 공연계 풍토에서, 제대로 된 축제를 치르기엔 미흡하지만 10억원 규모의 행사가 '드디어' 열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술제는 공연계 전체 축제로 자리잡는 데 실패했다.

이번 예술제가 '그들만의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기사를 쓰고 난 후 예술인 A씨로부터 메일 한통을 받았다.

'무용을 좋아해 안은미의 공연이 날 무척 유혹하는 했지만 행사가 어떤 의도로 기획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거기에 관람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는 내용이였다. 며칠 후 취재현장에서 만난 한 예술인도 예술제가 몇몇 인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작품 선정도 주먹구구였다는 걸 알고 있어 공연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째 행사 때 주최측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비·국비 확보에 실패해 인맥을 총동원, 협찬금을 마련하고 가까스로 행사를 치러냈다. 비밀 언덕 하나 없던 상황에서 행사를 꾸려나가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문제는 시비 등 6억원이 투입되고 준비 기간도 길었던 올해 행사까지 매끄럽지 못한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사실, 예술계 인사들을 취재하다 보면 '조용히' 자신의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직접 발로 뛰며 행사를 꾸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 보니 행사가 한 두사람에게 집중되는 면도 없지 않다.

몇차례 메일을 주고받은 후 A씨 역시 이번 행사가 공연계 전체 행사가 되지 못한 주최측과 함께 무관심했던 지역 예술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는 데 동의했다.

앞으로 예술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첫 단추부터 다시 꿰고 새 판을 짜야한다. 현 집행위는 열린 마음으로 문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냉소적이었거나 무관심했던 문화인들 역시 장외에서 불만의 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함께 아이디어를 짜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예술제는 특정인의 것이 아닌, 지역 문화계와 시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이다.

공연계는 광주국제영화제가 좌초한 이유중의 하나가 같은 분야 예술인의 협력과 냉소와 무관심이었다는 '아픈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

/mekim@kwangju.co.kr

# 장흥군수 재선거 열기 고조

### 자천타천 5명 출마 의사

오는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장흥군수 재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장흥군수직은 지난 7월 26일 김인규 전 군수가 부인의 교회헌금 사건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인 상태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장흥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성 전 전남도의원, 김창남 전남도의회 부의장, 백광준 전 장흥군의회 의장, 백도선 전 장흥군수, 이명흠 전 장흥부군수(이상 가나다순) 등 5명에 달한다. 군수·부군수를 지낸 행정가 출신과 전·현직 지방의원간 대결구도다.

이들 중 일부는 문종 모임 등 사조직을

점점하는 등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김 전 군수가 군정 실·과장파와 읍·면장은 물론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임을 갖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 직을 상실한 만큼 근신해야 마땅하나 전·현직 공무원들과 잦은 송별 모임을 갖는 것은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주민 김모(44·장흥읍)씨는 "지방선거가 혈연과 학연 등으로 얼룩질 경우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살림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암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연락처	010-9700-1111
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암평리 111-1
운영시간	월요일 휴무, 화요일~일요일 08:00~18:00
비고	회원제 골프장